

2008년 6월 11일

## 롤스-로이스, 중국에 지진 탐사선 공급

롤스-로이스는 중국 BGP 마린 차이나(Marine China)사와 1,3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첨단 지진 탐사선 1척 설계 및 관련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롤스-로이스가 중국의 해양 지진 탐사선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맺는 계약으로, 향후 롤스-로이스의 이 분야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중요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GP 마린 차이나사는 중국 국영정유회사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mpany)의 자회사로, 이번에 주문한 지진 스트리머(streamer) 탐사선은 전세계 오일 및 가스 탐사와 생산 지원에 운용될 예정이다.

롤스-로이스 해양유전 사업부, 앤더스 알메스타드(Anders Almestad) 사장은 “이번 통합형 시스템의 주문 계약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해양유전 시장에서 자사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했다.

롤스-로이스가 설계한 NVC 830 지진 탐사선은 다이렉트 구동 추진 체계를 갖춘 2축 스크류식 선박이다. 이 추진 시스템은 선박이 한해 동안 연해/심해에서 자체적으로 운용되는 14개의 스트리머 케이블을 견인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롤스-로이스의 통합형 솔루션은 엔진, 주 프로펠러, 터널 추진기(tunnel thruster), 조타 장치 및 키(rudder), 디젤 발전기, 계류 윈치(mooring winch), 자동화 시스템, 스위치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비는 2009년 말 또는 2010년 초에 인도될 예정이다.

롤스-로이스의 선박 설계는 클린 설계(Clean Design) 및 특수선을 위한 코드 요구조건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다. 특히 운용 시, 연료 소모량이 적고, 해상 안정성(sea keeping) 능력이 뛰어나다. 연료 저장 장치는 최대 80일 동안 선박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승무원을 위해 기계 시설과 분리된 별도의 편의 공간도 제공한다.

롤스-로이스는 이외에도, 올초 첨단 해양유전 지원 선박 2척 설계 및 관련 장비 탑재에 관한 5,800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Note

1. 상해에 위치한 롤스-로이스 해양 설비시설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곳이다. 이곳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장비에는 터널 추진기, 키, 제어 및 조타 시스템, 갑판 기계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롤스-로이스의 해양 비즈니스 사업부는 영국, 북유럽, 미국, 아시아 등을 포함한 34개국에 주요 제작 센터가 있으며, 7,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3. 롤스-로이스의 중국 진출 역사는 45년을 넘어서고 있다. 해양 사업 부분 이외에도 민간 항공우주 및 에너지 사업 부문이 중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아시아와 중동의 롤스-로이스 수주 금액은 4년 전 전세계 수주 금액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4. 최근 롤스-로이스 비즈니스는 중국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롤스-로이스 사업 전체에 걸친 중국의 롤스-로이스 제품 구매 가치는 2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영상 및 이미지 자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이미지 자료: <http://www.rolls-royce.com/media/gallery/default.jsp>

\* 방송 표준 영상 다운로드 <http://www.thenewsmarket.com/rollsroyce>

자료문의:

**CPR** 차유정 이사 / 02-739-7348 / 011-328-9643 / [junecha@icpr.co.kr](mailto:junecha@icpr.co.kr)

정혜윤 대리 / 02-739-7359 / 017-421-5522 / [elena@icpr.co.kr](mailto:elena@icpr.co.kr)